

지역 매 아리

정읍시, 가축전염병 방지 일제소독 캠페인 나선다

정읍시가 귀성객 이동에 따른 가축 질병 유입이 우려되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가축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해 10일 정읍역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가축 전염병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는 중국과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데 따른 조치다.

시에 따르면 캠페인과 동시에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추석기간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축산농가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방역방제기와 축협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소독하며, 겨울철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축산농가 차단 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든 악성가축전염병은 소독뿐만 아니라 축사내 전용장화와 환복 등을 사용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역이므로 개별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명절 전후 축산 관계시설 일제 소독을 철저히 해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 정읍을 사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시가지 환경정비 완료

정읍시가 '제13호 태풍 링링'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아있던 생활 쓰레기와 낙엽, 나뭇가지 등을 일제히 수거하며 태풍에 의한 피해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시청 공무원들과 노인 일거리 창출 사업 인부 등 약 60여 명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정비와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들은 이른 새벽부터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충정로와 벚꽃로, 찬변로, 수성 택지지구 등 시내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했다.

길가에 떨어진 나뭇가지와 비탄에 실려 온 쓰레기를 주위 담고, 주요 도로변을 비롯한 골목 구석구석을 빈틈없이 청소했다.

특히 태풍 링링의 영향권에 접어들었던 7 일에는 비가 오고 강풍이 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진공 노면 청소 차량 2대와 안물차량 1대, 송풍기 4대 등 청소 장비를 투입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인도의 쓰레기와 낙엽 잔재물들을 완벽하게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마을을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청소를 실시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고향에서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총력

정읍시, 셉테드 기법 도입... 시기성당 주변 안전한 귀갓길 조성·도시경관 개선

정읍시가 복잡한 골목길을 이용하는 시민, 특히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안심 골목길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시기성당 일원에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정비 사업인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사업'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기성당 주변은 좁고 어두운 골목길로 야간에는 범죄 가능성도 커져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왔다.

이에 따라 시기성당 주변에 총사업비 2천5백만원을 투입해 LED 동행 램프와 도로표지,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했다.



정읍시가 복잡한 골목길을 이용하는 시민, 특히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안심 골목길을 조성하고 있다.

범죄예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물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색다른 볼거리와 감성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 주민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셉테드(CPTED) 사업'이란 취약한 도시 생활 공간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설계기법을 의미한다.

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셉테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적 환경변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환 시장은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게 조금이나마 위트가 되었으면 하고, 아울러 경찰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서·경찰발전위원회, 소외이웃 위문방문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 안장환)에서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9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생필품을 전달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관

심을 필요로 하는 아동보호시설인 '고창행복원'을 방문해 훈훈한 정을 나누었고, 경찰발전위원회에서 생필품 등 위문품을 준비했다.

안장환 위원장은 "모든 주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를 바라며, 사

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환 시장은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게 조금이나마 위트가 되었으면 하고, 아울러 경찰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보건소, 만성질환 예방 건강강좌 실시

정읍시보건소가 오는 18일 오후 1시, 내장상동에 위치한 샘골보건지소에서 비만과 만성질환 예방 건강강좌를 실시한다.

강좌에서는 원광대학교 예방의학과 오영재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오 강사는 고혈압·당뇨·고지혈

증 등의 만성질환에 대해 설명하고 예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강좌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샘골보건지소는 시민의 만성

질환 예방과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요가·건강체조·라인댄스 등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분기별 건강강좌를 운영할 방침이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태풍 '링링' 피해농가 일손돕기 나서

부안군은 육군 제35사단 제8098부대 1대대와 협업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도작 농가 4곳을 방문해 대민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민지원은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도복 피해를 입었고 2차 피해가 예상돼 실시됐으며 부안군과 35사단 장병들이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적극 도왔다.

대민지원 농가는 인력이 부족하고 피해면적이 커 시급히 도움이 필요

한 농가를 신청 받아 선정했다.

김문갑 부안군 농업정책과장은 "풍족하고 즐거운 한가위를 맞이해야 할 시기에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어 시름에 빠진 농민들을 보니 통탄스럽다"며 "이번 대민지원이 피해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트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발전 위해 국가예산확보에 최선을”

유기상 군수, 국회 집중 공략

고창군이 고창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을 비롯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공약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유기상 군수는 10일 오후 국회를 찾아 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고창군 현안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유 군수는 ▲고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고창 강남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신규 사업에 반영을 건의했다.

또 관내 주요 SOC사업(고창-부안(부창대교) 국도, 국도77호선 변경지정 및 확포장, 서해안(군산-목포) 철도

건설 등)의 국가계획 반영, 한빛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 고창분소 설치·운영 관련 사업비 증액 등 현안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했다.

고창군은 향후 예산심사가 본격 시작되는 10월말에 앞서 정부예산안과 소·미반영된 중점 사업에 대해 지역연고 국회의원을 찾아 건의활동을 전개하는 등 국회단계 예산증액을 위해 중점 대응할 계획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예산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목표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과 LH가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건강관리부터 문화활동까지

고창군·LH, '고령자복지주택' 성공추진 위한 협약 체결

고창군과 LH가 신개념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강남지사서에서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LH공사 변창훈 사장과 LH주거복지 백경훈 본부장, 유기상 고창군수 등 전국 12개 고령자복지주택 추진지구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 역할분담, 토지사용, 사업비 부담 및 실무협의의 운영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고창군 고창읍 신월마을(고창군사회복지지구)에 들어설 고령자복지주택은 총 10층(8평형, 11평형), 126호 규모로 지어진다.

주택 저층부에 복지시설을 설치하

고 건강관리·생활지원·문화활동 등 프로그램을 연계한 한 건물 안에서 웰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다. 올해 기본실시단계 후 내년부터 2021년까지 건축완료,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계획이다.

특히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문턱제거, 불꽃이조절 세면대, 무장애설계를 기본으로 화장실과 복도 등에 손잡이와 난간설치를 추가했고, 1층에는 공동예탁실, 푸드마켓, 교육 프로그램실, 요리실습실 등을 갖추도록 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이 추진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LH가 흔쾌히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면서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고창군의 신개념 노인복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향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세 | 375ml 2ea/13%

부안 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00
www.gangsanwine.com